향토사료집 - 제 1 호 -

문 화 강 좌 교 재
(향토의 인물 제 1 집)

횡 성 문 화 원

목 차

조 충 장군 ····· 3

한 상 렬 의사 ····· 14

최 양 옥 지사 ····· 17

< 趙沖 > 趙沖은 父親 永仁과 아들 계순과 더불어 橫成 趙氏 門中은 물론 江原道에서 빼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고려조를 통해서 文臣으로 빼어났고 武臣으로 유명했던 그들은 3 代가 원수를 지냈다 하여 3 원수라 부르며 公根面 上洞理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 세덕사라 부르며 매년 봄, 가을에 祭享을 올려 왔으므로 이곳 지명을 삼원수골이라 불리운다.

沖은 趙永仁의 아들로 高麗史 列傳 第 16 卷에 보면 沖의 자는 심약이며 생후 1 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위었으며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孝童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또한 橫成趙氏 족보에 의하면 그는 上洞理 紫之峰 아래 있는 굴바위(석굴)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5 백 m 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을 趙村이라 부르고 다시 이곳에서 3 백 m 아랫쪽에 있었다는 仙隆亭 에서 이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고 적고 있다

趙沖은 고려때 거란족을 막은 大將軍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시호가 文正公으로 아버지 文景公 , 아들 光定公으로 그들의 생애가 모두 문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의 趙補에 대한 서술은 모두 戰線에서 방은 공적에 관한 것이다. 崔氏 무단정치가시작되던 최충헌의 집권 당시 였으니 文臣으로서 찰동은 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비록 활발하였다 해도 감추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鄭仲夫의 난 이후 최충헌의 집권까지 무신의 분쟁이 계속되어 마치 문신인 김부식이 上將單이되어묘청의 난을 평정하고 功勳을 차지하던 그와 같은 문신의 횡포는 지양되었을 때이고 보면 충은 명설상부한 상장군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가 문과에 及第하여 文臣으로 활약하다가어떤 경로를 거쳐 무신으로 입신출세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문신으로 일했고 전시에는 무신으로 장군이 되어 국방에 몸바친 것을 보면 文武를 겸비한 인물임에 틀림 없다.

다시, 橫城趙氏 세보에서 그가 등용된 과정을 살펴 보면 음보로 벼슬에 올라 둥용된 후 명종 때인 1190 년에 及第하고 熙宗 7 년인 1211 년 國子大司成 寶文關太學

士 겸 翰林學士에 올랐는데 그의 수중에 典册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때부터 학자로서 정통적인 출세의 길에 접어든 셈이며 그가 東北面兵馬使를지낸 것은 무신의 자리를 맡은 것인데 東北面桑馬使는 東界의 군정 책임자로서 지금의 成南,江原의 東海岸의 행정을주관하는 동시에 동북방면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그 후 그는 禮部尙書를 말아 文臣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문무의 자리를옮겨가며 그 재질을 발취하다가 高宗 3 년인 1210 년에 樞密院副使 翰林院承旨로서 上將軍 을 겸임하였다.

고려사 열전에서도 충은 재질이 문두를 겸비하여 특별히 두 관직을 주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혹자는그의 이같은 立身을 최씨 정권의 혼잡한 정계를 틈타서 비정상적인 출세도를 달린 인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최충헌 집권의 초기는 鄭仲夫, 慶大升등에 의해서 문란해진 정가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긍을 보고 있는 때이고 최충헌 형

제의 싸움을 기점으로 난폭해졌던 때는 충이 그의 正道를 지켜 최씨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딘 때이다. 그가 거란즉과 싸움이 끝난 뒤 평양(西京)에서 버티면서 최충헌과 한때 맞섰던 것은 곧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증에 대대 功勳을 주는 정도가 소홀하여 맞서게 되었다고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戰亂吏에 特記되어 있다. 이것은 곧 그가 세도가나 볼량배와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그의 곧은 절개와 충성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웬만하면 세도가에 의탁하여 자기의 철학과 인간의 知性을 짓밟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권위로 군림한 자리에는 예사 복종의 논리만을 자기의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미학의 세계로 발전시켰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풍토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충의 고고했던 성품과 행동은

무신 집권기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성적 레지스땅스 풍토를 유지하는데 자못 有益한 것이다. 그가 그러한 성품과 행동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력이 한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들여진 것이라고 식자들은 평하고 있다.

그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 국사상에 그 공훈이 빛나고 있는데 그 전란사를 통하여 그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 보면, 고려는 北進政策을 세워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북진정책은 거란, 여진, 몽고의 침입 때문에 좌절 되었는데 중국에서 몽고족이 일어나 北中國을 지배할 때 만주에서 살고 있던 거란족이 몽고에 밀려 고려를 침범하였다. 이것을 거란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데, 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이 몽고의 지배를 받기 전에 북중국을 지배하여 요나라로 군림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즉, 고려 成宗과 顯宗때에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란유족의 침입이라 한다. 그들이 고려를 침입한

때는 고종 당시의 일인데 특징적인 것은 정규 군대의 침입이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침입군이어서 엄격하게 말하면 거란족 이동의 성격을 띤 것이 짙었던 것이다. 그들은 갖은 약탈의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강토를 짓밟았다. 그들의 처지로 보면 돌아 갈 곳이 없는 형편이니 고려에 살 곳을 만들어야 했고, 살 곳을 만들자니 악착같이 싸워야 했다. 돌아 갈 곳이 있는 무리라면 싸우다 불리하면 후퇴하는 수도 있겠지만 돌아 갈 곳이 없어 새로운 생활 근거지를 찾아 다니는 무리였으니 싸움과 죽음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무리였으니 약탈도 극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처음 침입한 때는 고종 3 년 이었는데 平安道방면으로 들어와 평안도는 물론 黃海道지방을 짓밟고 당시 서울 이었던, 開成을 피해 철원을 침입하고 陽平을 거쳐 原州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9 번의 큰 싸움을 통해서 原州地方의 싸움은 고려 전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와 같은 9 번의 싸움 끝에 침입한 거란족은 橫城, 洪川, 春川을 침입했다.

당시 춘친은 안양이라 했고 도지사격인 按察使가 있었는데 鳳儀山 혈전의 애절한 史話와 함께 按察使 魚周翰이 전사했다. 춘천을 완전히 점령한 그들은 원주를 재침하여 짖밟다가 고려군에게 쫓겨 제천, 영월, 강릉, 양양을 거쳐 항경도를 지나 女眞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거란유족의 침입은 강원도 전란사에서 특기되는 사건이며 희생도 많았다. 특히 강릉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을 피해 울릉도로 피난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는 비극을 연출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충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승전과 패전의 연속 가운데 한때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파면당한 일도 있었지만 곧 다시 복직 되었다 . 그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거란유족이 재 침입한 고종 5 년인 1218 년으로 그는 西北面元師로 임명되어 金 就勵, 鄭通 寶, 오수기 등의 장군을 앞세우고 평안도 방면으로 쳐들어 오는 적을 맞아 싸웠다. 거란족은 고종 3 년에 침입했던 때 처럼 남쪽으로 내려 가려 했지만 조충의 탁월한 작전에 말러 침략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고 江東城으로 도피하는 등 겨우 목숨을 부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종 3 년에 침입때에 쉽게 막지 못한 것은 최충헌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최충헌의 愛妓 紫雲仙이 平安道 白丁들에게 가혹한 稅를 거두어서 거란족과 합세했다는 점과 둘째, 고려 군인 중 젊고 용감한 군인은 최충헌의 私兵으로 만들어 실제 고려군은 늙고 힘이 없었다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조충은 그러한 군대일 망정 김취려 등과 함께 잘 싸워 적을 江東城에 몰아넣고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몽고가 원조를 핑계삼아 進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몽고군과 함께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正月에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 3 년간에 걸친 전란은 이로서 끝났는데 여기서 조충의 처사에 두 가지 특수한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몽고군의 대장 합진과의 談判광경인데 주연상이 베풀어진 몽고군 진영에서 술을 무한정하게 잔을 바꾸었고 안주는 몽고식으로 칼에 고기를 꿰어 상대방의 입에 넣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술자리 였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게 분위기를 제압하여 합진으로부터 형의 대우를 받고 돌아와 당시 합동작전의 결과 처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국사상에서도 유명한 것인데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족의 왕자를 비롯한 지도층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지만 그 외의 5 만여명의 거란족을 우리나라 곳곳에 분산시켜 살게 하였다. 이 같은 용단은 거란족이 몽고의 일파인데도 불구하고 몽고에서 살지 않고 고려에서 살겠다고 애원한 탓도 있겠지만 어제의 적을 한 가족으로 맞아 주는 성품 그것이 바로 조충의 인간성이다.

조충의 거란족을 우리 나라에서 살게 하는 계획은 고려정부에서도 동의 수락하므로서 방방곡곡에 거란족의 촌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거란장이다.

이러한 그는 고종 7 년인 1220 년 9 월 30 일 50 세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왕이 조회를 3 일간 폐하고 애도하는 등 모두가 안타까워 하였다. 그에게는 政堂文學判例部事 修文 太學의

벼슬이 더해졌고 사후에는 金紫光祿大夫
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에 追贈되고 文正公의 시호가 내려 졌으며 그에게는 처 東州崔氏와 아들 趣昌과 계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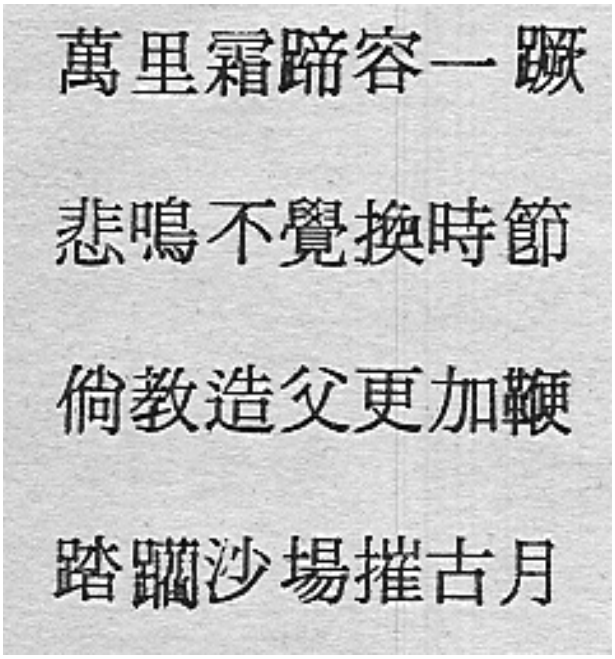
조충은 고려 때 高宗 묘정에 配享되었고 朝鮮祖에 이르러 고려 太祖, 顯宗, 文宗, 元宗과 함께 고려 충신 16 인 列位에 한 분으로 숭의전에 配享되었다.

그의 묘소는 지금 북한땅인 開城郡(市) 上道面 연동의
太祖王妃齊陵 서편 언덕에 있었던 것을 6.25 동란전인 1948 년 지금의 횡성읍 정암리의 望白으로 옮겨왔다.

여기서 조충과 연관된 地名을 살펴 보면 공근면 부창리에 있는 望祭머리는 그의 計音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드린 곳이고, 拜行고계는 3 원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望白은 벼슬에 오른 후손들이 조상께 사뢴다는 뜻이라고 전해 진다.

끝으로 조충의 詩중에서 현존하는 시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는 그가 副原師로 出征하였바가 피하여 펄직된

뒤에 읊은 시로 그의 恨과 애국심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후에 다시 女眞의 黃族子軍을 압록강에서 대파하고 오히려 元師職에 오르게 된다.


萬里霜蹄容一蹶
悲鳴不覺換時節
倘教造父更加鞭
踏躪沙場摧古月

만리 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 졌으니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뀐 줄 몰랐노라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꺽어나 보자

<韓相烈>

일제의 침략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韓相烈 의병대장은 한동수의 長男으로 字는 文極이며 1876 년 4 월 2 일 橫城郡 隅川面 文岩理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강한 용기와 인내심으로서 놀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이들로서는 理解할 수 없는 넓은 抱擁力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때 日帝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이들을 토적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인물들을 糾合하여 1907 년 8 월 鄕里인 橫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장이 되어 일제의 탄압에 항거, 대항하였다.

의 병 수는 최소 2 백여명이고, 가장 왕성한 때에는 1 천 2 백여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기상 또한 분노에 가득차고 생기가 왕성하였다.

韓相烈先生은 이러한 의병들을 통솔하여 韓甲復, 閔肯鎬, 李仁榮의 병들과 더불어 지평, 洪川, 原州, 平昌, 寧越,

등지를 전전하며 日本軍과 싸우기를 무려 5 백 여회에 이르고
많은 日本兵을 도륙하고, 무기 탄약 등을 로획 하는 전과를
올렸고 특히 1908 년 2 월에는 洪川에 있었던 일본군 대부대와의
대회전에서 이를 격퇴하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에
일본군들은 그해 4 월 2 일 문암리에서 韓相烈의 처자를
납치해다 놓고 그에게 귀순을 강요하였으나 일본군이 안정된
생활과 온갖 조건을 제시하여도 " 나 자신의 일 보다는 조국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결의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 수단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4 월
20 일 에는 횡성읍을 습격하니 일본군의 간담은 싸늘해졌다.
이토록 韓相烈은 맹렬히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나 일본군이
병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소위 대토벌작전을 전개하는 바람에
우리의 의병군들은 解散내지 敗散됨에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이
어려워짐을 느끼고, 1920 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大韓 의용부에 가담하여 참모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1926 년에는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이해 9 月 19 日 민족진영의 分裂 및 沒洛을 책동하는 소위 駐中靑年總聯盟 共産당원들의 흉탄에 맞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어이 없게 동족의 손에 의하여 51 세를 일기로 別世하였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불태워 조국에 희생하는 韓相烈 대장의 정신과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겨레 앞에서의 순응한 애국심은 항일사에 화려한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다.

1963 년 정부로부터 光復軍으로 활약한 공로로 建國勳章 國民章을 받았다.

<崔養玉>

崔養玉 志士는 江陵崔氏로 1893 년 12 월 5 일 江原道 橫城郡 甲川面 花田理에서 出生하였으며 호는 추강 자는 吉俊이다.

1913 년 4 월 原州普通學校에 입학하여 1917 年 同校를 卒業하였다. 同年 3 월에 서울 中東中學校에 入學하였다. 1919 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志士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故鄕인 橫城으로 내려와서 同志를 모은 뒤어 天道敎人들과 합세하여 3 月 27 日 橫城邑 장날에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志士는 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가진 고생을 겪으며 상경한 후 만주에가서 李東寧,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금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 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던 申德永, 노형규 등과 扶韓靑年團을 조직하였고 志士는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全南 각지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志士는 다시 申德永, 노기준과 같이 全南 담양군 및 谷城郡에서 군자금 모금에 전력하던, 同年 11 月 5 日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光州로 가던 도중에 日警에게 체포되어 1921 년 5 월 7 일 光州地方法院에서 징역 7 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고 1926 년 출감하였다.

출감한 뒤 고향을 찾아가니 부친은 이미 4 개월 전에 別世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몸을 바친 志士는 가사불고하고

고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中國 山西省 大原府에선 安昌男, 李客華, 金正蓮 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共鳴軍을 조직한 후 軍長에 피선되었다.

1927 년 安昌男, 申德永, 金正蓮등과 북만주에서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目的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금과 서울에 共鳴軍 支部를 설치하고자 김 金正蓮, 李善九와 함께 서울 교의 忘憂理에서 춘천으로 가던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그리고 志士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주머니를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日本人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 버리고 동포들의 우편물만 남겨두었다. 이때 이

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짜기로 끌고가서 꿇어 앉히니 그 수효는 70 여명 이었다. 이와 같이 산 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에 志士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 미쳐 이 급보를 받은 日警은 京幾, 黃海, 江原, 忠淸, 忠南등 5 도의 日警고사 日本軍 제 19 師團의 응원을 얻어 경기도 양주의 天馬山을 포위하였다. 志士의 일행은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1 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 세력 궁진하여 중과부족이라 日警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京城地方法院에서 1 년간의 예심을 거쳐 志士는 징역 10 년의 언도를 받고 金正蓮은 징역 9 년 李善九는 징역 6 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던중 李善九는 옥중에서 병사하고 志士는 10 년이란 긴 세월을 박역하다가 만기로 출옥하였다.

1945 년 8 월 15 일 광복 후에는 서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 年間 근무하였고 仁川형무소장으로 승진되어 근

무하다 先山이 있는 갑천면 전촌리에 귀향하여 가족도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시며 마을 노인 회원들과 소일하던 중 1982 년 노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지금 전촌리에는 崔養玉의 묘가 있으며 그의 一生을 기록한 묘비가 있고 해마다 한식때가 돌아오면 서울에 사는 자손들이 찾아 와서 사초를 하고 제를 올린다. 共鳴軍 活動으로 建國勳章을 받았다.